



2013년 4월 2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캐나다와 한국의 가계부채

• 경제분석

3월 물가: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 압력, 전망 하향

• 이머징마켓 동향

제조업 PMI 예상 하회, 약보합 마감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SK하이닉스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유한양행 외 5개 종목

• 산업분석

손해보험, 건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25(월)	03/26(화)	03/27(수)	03/28(목)	03/29(금)	04/01(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77.67	1,983.70	1,993.44	1,993.52	2,004.89	1,995.99
	등락폭	28.96	6.03	9.74	0.08	11.37	-8.90
	등락종목	상승(상한)	544(7)	384(1)	399(2)	411(5)	528(6)
		하락(하한)	266(3)	411(1)	407(1)	387(0)	281(0)
	ADR	98.23	99.89	101.54	100.36	99.28	99.34
	이격도	10 일	100.06	100.41	100.94	100.99	101.47
		20 일	99.21	99.57	100.08	100.11	100.74
	투자심리	40	50	50	50	60	60.00
	거래량 (백만 주)	272	299	347	363	339	264.57
	거래대금 (십억 원)	3,408	4,009	3,794	3,394	3,445	2,577.94
코스닥	코스닥지수	549.56	549.90	548.72	552.64	555.02	553.97
	등락폭	-1.69	0.34	-1.18	3.92	2.38	-1.05
	등락종목	상승(상한)	536(8)	436(13)	399(8)	515(11)	522(10)
		하락(하한)	377(5)	476(1)	517(2)	390(2)	381(1)
	ADR	102.46	102.64	103.19	102.67	102.11	102.76
	이격도	10 일	100.20	100.15	99.95	100.69	101.11
		20 일	101.21	101.06	100.65	101.19	101.45
	투자심리	60	60	50	50	50	60.00
	거래량 (백만 주)	378	385	435	401	398	397.22
	거래대금 (십억 원)	1,800	1,948	2,030	1,838	2,050	1,867.9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452.3	383.5	726.6	133.4	143.5	204.9	44.1	20.8	150.1	32.4
	매도	1,396.2	440.6	723.4	114.2	132.2	238.1	37.1	19.6	154.4	34.6
	순매수	56.1	-57.1	3.2	19.2	11.3	-33.2	7.0	1.2	-4.3	-2.2
	04 월 누계	56.1	-57.1	3.2	19.2	11.3	-33.2	7.0	1.2	-4.3	-2.2
	13 년 누계	271.7	-2,843.3	2,903.5	1,154.5	486.4	-1,838.5	-32.6	24.8	2,303.4	-331.9
코스닥	매수	1,733.9	55.8	83.2	11.1	8.7	31.2	6.1	1.7	21.0	14.2
	매도	1,700.3	70.0	100.0	20.0	13.9	32.6	9.0	4.7	14.5	16.7
	순매수	33.5	-14.2	-16.8	-8.9	-5.2	-1.4	-2.9	-3.0	6.5	-2.5
	04 월 누계	33.5	-14.2	-16.8	-8.9	-5.2	-1.4	-2.9	-3.0	6.5	-2.5
	13 년 누계	-990.1	643.7	592.7	65.0	26.8	136.5	-31.7	3.0	345.8	-246.3

캐나다와 한국의 가계부채

4월 월간 밴드	1,920-2,05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5배
12MF PBR	1.04배
Yield Gap	8.1%p

- ▶ 미국발 달러유동성 위축시 가계부채 등 레버리지가 높은 국가가 불리
- ▶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이유로 캐나다 경기둔화 우려를 표명함
- ▶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 정부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여지가 남아있다

미국발 달러유동성 위축은
미국보다 여타국가에 부정적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과도한 가계부채를 이유로
캐나다 경기 둔화 전망

■ 3월 30일 이코노미스트, 캐나다 가계부채를 우려한다

미국발 달러유동성 위축은 미국 경제보다 레버리지가 높아진 특정국 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나타난 적이 많았다. 일례로 미 연준이 94년 기준금리 3%에서 95년 6%까지 300bp 인상했을 때, 단기자금조달이 많았던 멕시코에서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13년에 미국 고용,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라 달러유동성이 미국으로 강하게 환류된다면 레버리지가 높은 국가에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

때마침 3월 30일자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캐나다를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국가로 지적했다. 캐나다는 서브프라임 위기에도 가계부채 축소, 디레버리지를 겪지 않으면서 경제구조가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해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11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에 힘입어 가계소비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상회한만큼 향후에는 가계부채 감소,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13년 미국 QE3 규모 축소가능성, 미국 달러유동성 환류,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이 촉매로 작용한다면 캐나다 가계부채 감소, 부동산가격 하락이 앞당겨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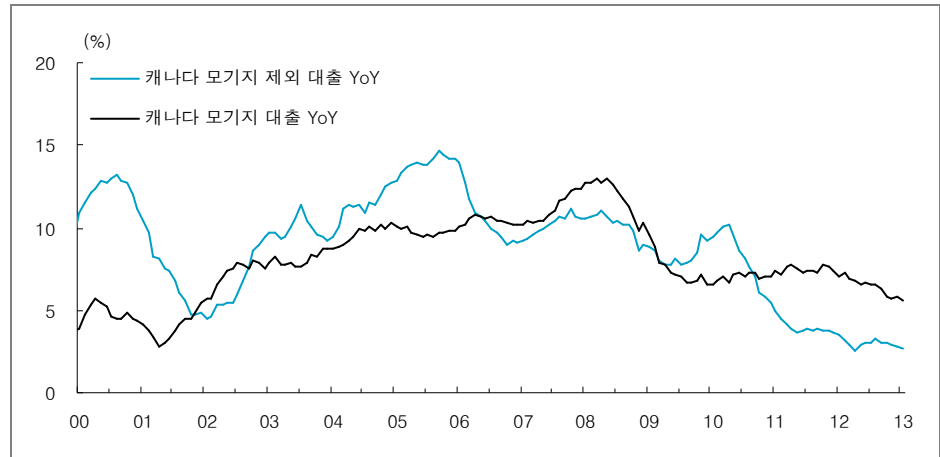
[그림 1] 살얼음 위의 캐나다 비버의 집(Debt)은 늘어나기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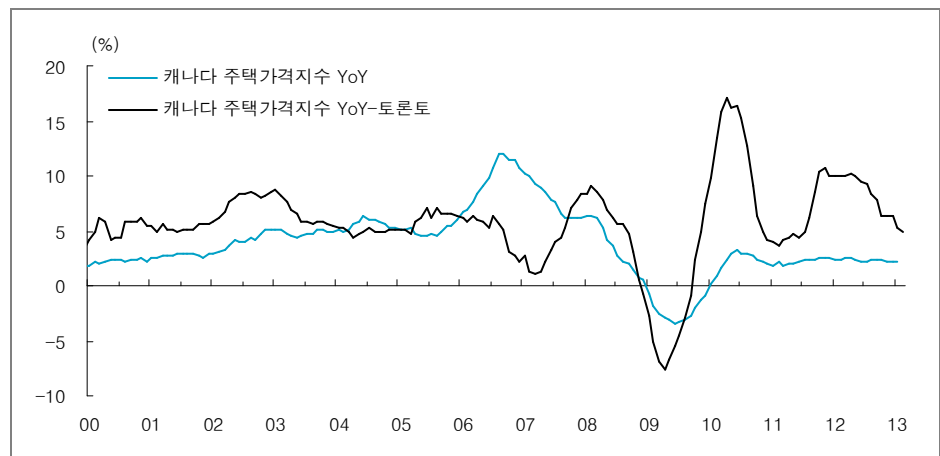
자료: Economist, 한국투자증권

캐나다는 수출, 정부지출, 기업투자마저 둔화되고 있다. 수출측면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자급률 상승으로 인해 최대수출품목인 원유, 가스수출이 부진하다. 재정건정성,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정부, 기업으로 인해 정부지출, 기업투자도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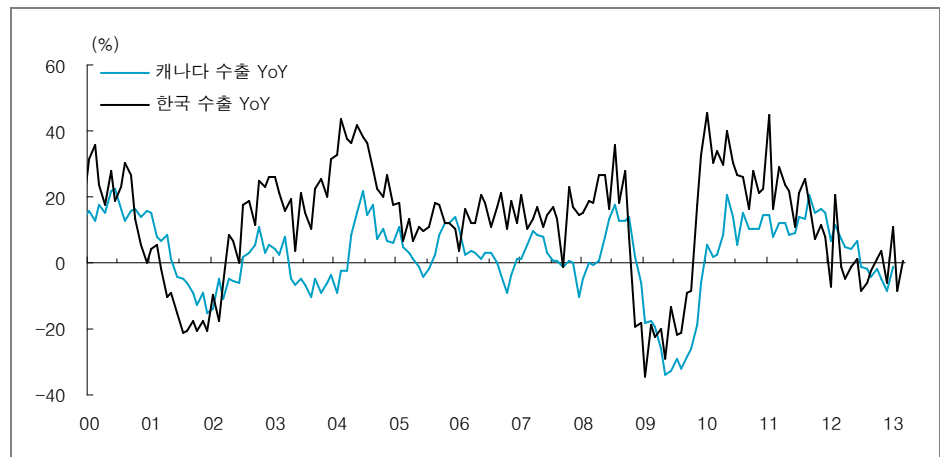
[그림 2] 캐나다 모기지/모기지제외 대출 전년비- 가계대출 증가속도 둔화



[그림 3] 캐나다 주택가격지수- 토론토 주택가격 12년 9월 이후 하락세



[그림 4] 캐나다 수출 전년비- 원유, 가스 수출 감소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캐나다와 한국 가계부채의 공통점과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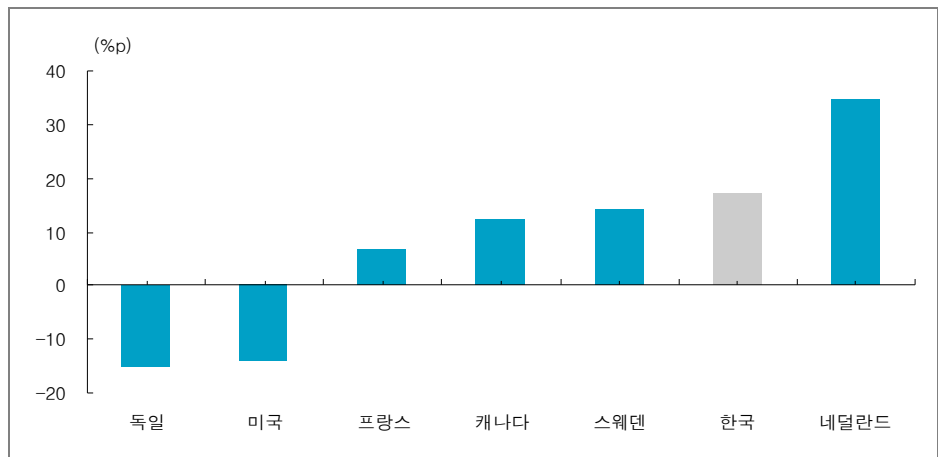
캐나다 가계부채와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가 이어졌다. 게다가 엔화 약세로 인해 한국 수출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다만 캐나다와 한국이 다른 점은 분명히 있다. 한국이 최근 수출부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수출품목, 수출처가 다양해 수출급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일본 수출 감소에도 ASEAN, 중국 수출 증가로 일부 상쇄했다.

한국 가계부채의 문제는 비은행권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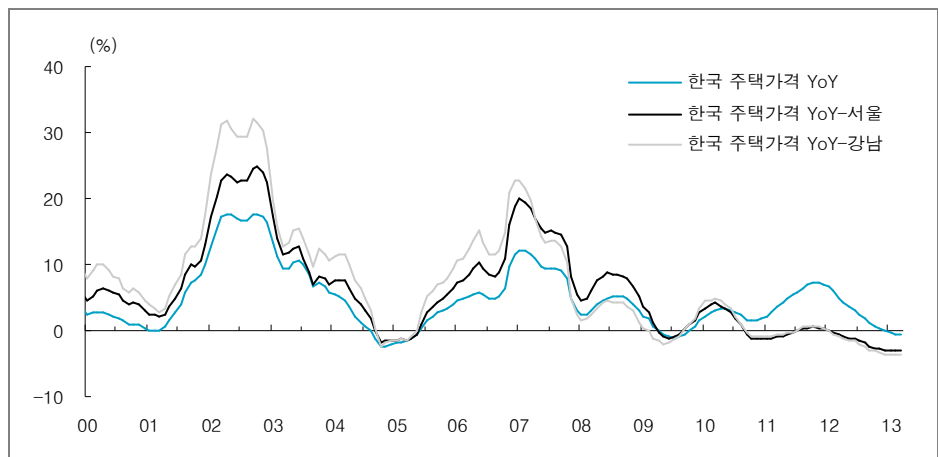
또 한국 정부는 가계부채 이슈는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KDI원장시절 발표자료에서는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비은행권 비우량 가계부채에 특화된 대책에서 찾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박근혜정부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비은행권 비우량 가계부채에 특화된 대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그림 5]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증감 (07년 대비 최근 연도)



자료: OECD, 한국투자증권

[그림 6] 한국 주택가격 전년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기준금리 인하를 인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

박근혜정부는 통화정책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높다. KDI 경제전망(2012/11)에서는 한국경제를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한 정책대응을 강조했다. 4/1 부동산대책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도 서민가계의 실질적인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가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2012년 135.6%로 2003년에 비해 28.9%p나 높다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지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표 1〉 한국 처분가능소득과 가계부채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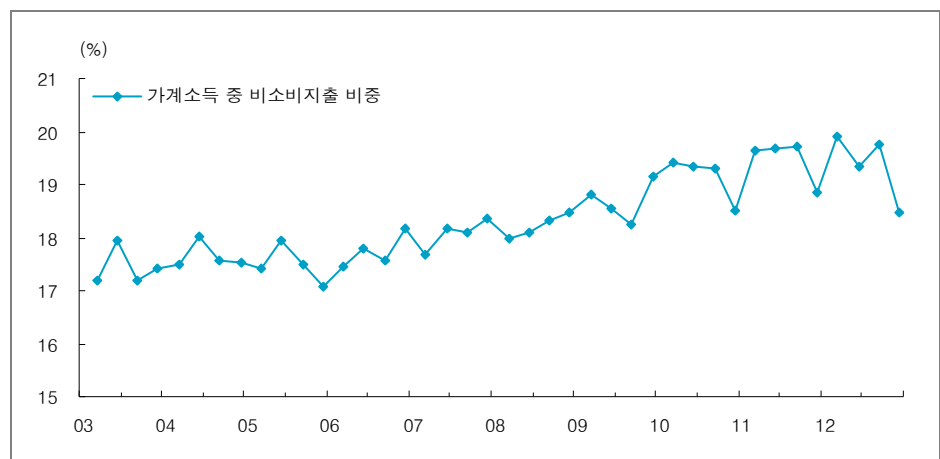
연도	국민 처분가능소득 (A)	가계부채 (B)	B/A
2003	442,260	472,051	106.7
2004	477,911	494,203	103.4
2005	499,925	542,871	108.6
2006	520,986	607,133	116.5
2007	545,518	665,394	122.0
2008	577,870	723,522	125.2
2009	601,994	775,985	128.9
2010	643,283	843,190	131.1
2011	678,822	911,892	134.3
2012	707,331	959,392	135.6

주: 2012년 국민처분가능소득이 28조원 증가할 때 가계부채는 48조원 증가함, 가계부채 증가가 국민 처분가능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비소비지출 비중 상승속도 다행히 둔화되고 있음

[그림 7] 가계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 (세금, 연금, 이자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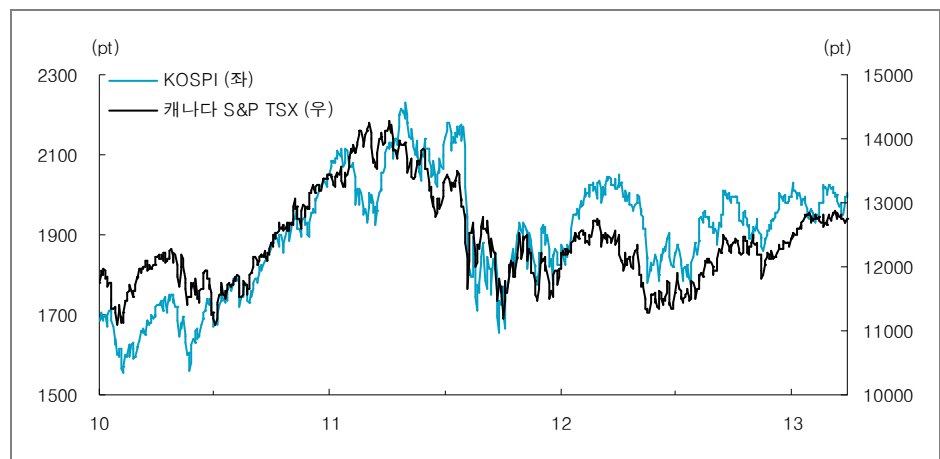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 캐나다 S&P TSX에서 KOSPI 지수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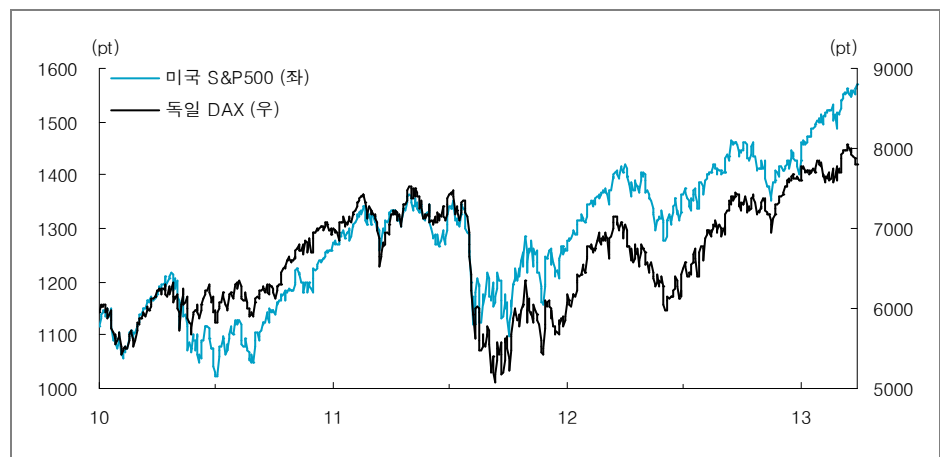
캐나다 S&P TSX는 11년 고점 대비 10.7% 하회하고 있고 KOSPI는 10.5% 하회하고 있다. 미국, 독일 증시와 다른 캐나다, 한국 증시의 부진요인 중 하나는 가계부채 문제라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달러유동성 위축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 디레버리지를 원만하게 처리한다면 KOSPI 강세가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달러유동성 위축으로 인해 KOSPI는 캐나다 S&P TSX와 비슷하게 강세가 제한될 수 있다.

[그림 8] KOSPI와 캐나다 S&P TSX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미국, 독일 주가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 전주 주요일정

날짜	국가	내용
03/22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 0.6%, 나스닥 0.7%, S&P500 0.7% 상승, 키프로스 사태 우려 감소
03/25	키프로스	키프로스, 트로이카(EU, IMF, ECB) 구제금융 잠정합의, 2위 은행인 라이키 은행의 10만유로 이상 예금 40% 손실 발생
03/25	한국	삼성전자, 베트남 핸드셋 제2생산공장 착공, 2015년 연산 1.2억대 규모, 최대생산기지로 부각됨
03/25	한국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유리 대신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플라스틱 OLED 적용, 충격 축소
03/25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 29일 출범, 4월 22일~30일 가점수 받을 계획, 대출연체자 채무감면 추진
03/25	EU	유로그룹의장, 예금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키프로스 구제금융방안 여타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남유럽 은행업종 주가 급락
03/25	미국	버냉키 연준 의장, 연준의 양적완화는 경제성장 강화를 통해 상대교역국에 혜택을 주는 정책임, 근린부유화정책(enrich-thy-neighbor)
03/25	미국	IMF, 미국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종전의 2%에서 1.7%로 내릴 것이라고 보도됨, 시퀘스터 등 재정지출 축소 반영
03/26	한국	SK브로드밴드, 5거래일째 약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매도물량 출회, 실적성장 예상 하회 전망
03/26	한국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군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
03/26	EU	EU집행위 대변인, 10만유로 이상 고액예금자 손실분담 법개정 검토, 남유럽 은행 자금 유출 우려 높아짐
03/26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3월 59.7, 2월 68.0, 예상치 67.5 하회, 급여세 인상, 시퀘스터 등 재정지출 감소가 반영됨
03/26	미국	2월 내구재주문 5.7% MoM, 예상치 3.9% 상회, 12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자동차 및 항공기 주문 급증
03/26	미국	케이스실러 지수 1월 8.1% YoY, 예상치 7.9% 상회, 다만 신규주택매매 2월 -4.6% MoM, 41.1만건, 예상치 42만건 하회
03/26	미국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은행예금 손실 발생으로 이태리 -1.8%, 그리스 -4.9% 하락, 반면 S&P500은 0.78% 상승
03/26	미국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시험비행 실시, 배터리 고장 원인 해결, 항공기 주문 증가
03/27	한국	국군, 중·동부전선 진돗개 하나 발령, 새벽 2시30분께 강원 화천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 후 9시 30분 해제
03/27	일본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장기 국제 매입 검토 중, 자산매입프로그램의 대상 국제 만기를 5년으로 확대
03/27	한국	현대하이스코, 제모 가격 하락,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자동차용 열연 가격은 2월까지 소급해서 인상됨
03/27	한국	제일모직, OLED매출 본격화 전망에 4.02% 상승, 최초 양산 제품은 삼성 갤럭시S4에 채택된 것으로 추정됨
03/27	이태리	그릴로 등 오성운동,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서 민주당과의 연정 거부, 베르사니 등 민주당의 내각구성에 반대, 국제금리 상승
03/27	키프로스	키프로스, 예금 대량 인출을 막기 위해 해외 송금 금지, 해외반출현금 한도 제한하는 자본통제 방안을 마련
03/27	미국	미결주택 매매건수 2월 -0.4% MoM, 예상치 -0.3% 하회, 선행성이 높은 주택지표가 예상외로 부진
03/28	한국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 정권교체에 따라 임기가 1년이나 남았음에도 자진해서 사의 표명함
03/28	한국	행정부,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2.3%로 하향, 추경예산안 편성 당위성 강조, 중소기업 지원 등 강조
03/28	한국	추경 예산안 편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국고채 강세, 3년물 2.51%로 전일 대비 7bp 하락
03/28	한국	삼성전자, 일본 샤프 신규발행한 신주 3580만주, 3.04% 인수, 103억8316만엔 납입함으로써 5대 주주가 됨
03/28	중국	상해종합지수 -2.8%,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규제 강화, 상업은행의 투자상품의 투자범위와 규모 등을 제한
03/28	이태리	이태리 민주당 연정구성 포기, 6월 또는 9월 조기총선 가능성 높아짐, 불확실성 확대
03/28	키프로스	키프로스 정부, 하루 예금 인출액 제한(1인당 300유로), 무역대금 결제를 제외한 국외 송금 중지 등 자본통제로 뱅크런 방지
03/28	미국	4분기 GDP확정치 0.4%, 수정치 0.1% 상회하며 상향조정됨, 다만 예상치 0.6% 하회, 소비지출감소, 연방정부지출 감소 반영
03/28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5.7만명, 전주 34.1만명, 고용지표 개선 소폭 둔화
03/28	미국	S&P 500, 0.41% 상승, 1,569.19pt로 마감, 사상 최고치를 경신, 키프로스 사태 진정이 호재로 작용함
03/29	한국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스마트폰 케이스 사출기 발주, 5인치 스마트폰 케이스 월 700만개 생산가능할 전망
03/29	일본	일본 전력업계, 원자력발전소 가동 제한으로 LNG 수입 증가, 엔화 약세로 LNG가격 상승, 5월 전기요금 인상 예정
03/31	한국	4월 1일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예정, 미분양 주택, 신축주택 양도세를 한시 감면 방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검토
04/01	한국	STX팬오션, 지분 공개 매각 불발, STX, STX조선해양 등 STX 그룹 유동성 우려 부각
04/01	일본	단칸지수, 13년 1분기 -8, 평균 전망치 -7 하회, 다만 12년 4분기 -12에 비해 개선됨
04/01	중국	3월 제조업 PMI 50.9, 예상치 51.6, 하회, 다만 2월 50.1 상회, 12년 10월 이후 6개월째 확장세
04/01	한국	3월 수출 0.4% YoY, 수입 -2% YoY, 무역수지 흑자 33.6억달러, 14개월 연속 흑자, 동남아,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
04/01	한국	대우인터내셔널, 이동희 부회장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포스코에너지 이관설을 부인
04/01	한국	LG하우시스, 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한 기대 반영으로 상승
04/01	한국	GKL 정희선 대표이사 권한대행 특혜채용 의혹에 직무정지, 불확실성으로 주가 약세
04/01	한국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생애최초 취득세, 신축/미분양/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
04/01	일본	니케이 -2.12%, Topix -3.30%, 단칸지수 회복 속도 예상치 하회, 차익매물 부담으로 일본증시 약세
04/01	미국	3월 ISM제조업지수 51.3, 2월 54.2 하회, 신규 수주지수 57.8에서 51.4로 하락, 시퀘스터 영향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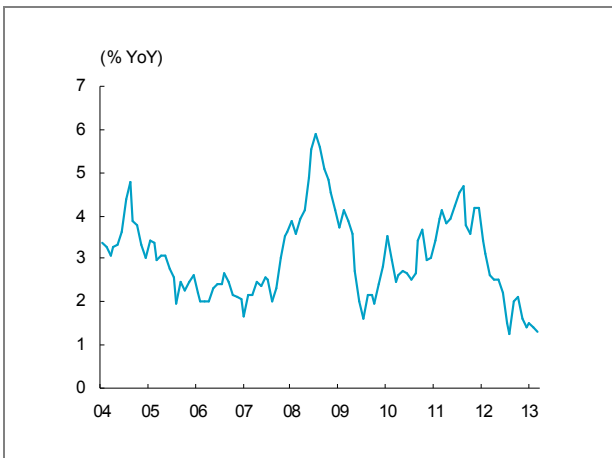
3월 물가: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 압력, 전망 하향

- ▶ 3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전년 동월비 1.3%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
-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더 큰 폭 하락, 경기 부진과 보육료 지원 확대 영향
- ▶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우호적 여건, 국내외 수요측 압력 낮아 연간 전망 하향

■ 3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전년 동월비 1.3%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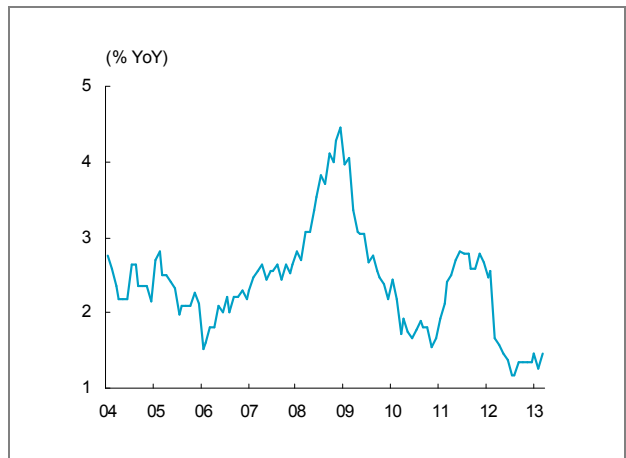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비 0.2%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비로는 1.3%로 둔화됐다. 전월비 0.3% 상승(+1.8% YoY)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는 물론, 전주 '지표 Preview'를 통해 당사가 추정했던 -0.1%(+1.4% YoY)보다도 낮은 결과였다. 농축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2.7%씩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 안정에 기여한 바 컸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가 전월 대비 0.4% 하락한 것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그림1] 소매판매



자료: 통계청

[그림2] 설비투자지수



자료: 통계청

■ 현재 인플레이 압력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부진

3월 물가 하락이 예상보다 컸던 것은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도 안정적이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데 따른 일회성 요인도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올해 2월까지 0~2세,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됐던 보육료가 3월부터는 0~5세로 확대되면서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가 전월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7%에 불과해 전체 물가 안정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물가 상승세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부진으로 수요측 압력이 낮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전월보다 올랐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6%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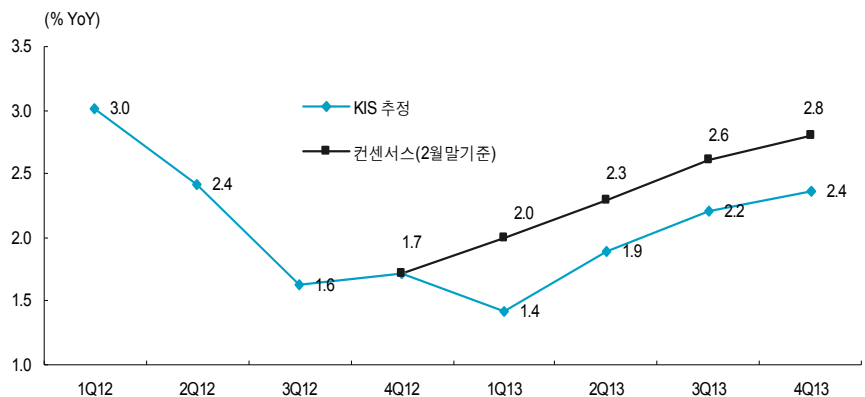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췄으며, 세수 부족에 따른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 우려가 낮은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 2%로 하향

우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낮아질 것을 전망해왔으며, 전주 정부도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물가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추정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2013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계절적으로 1~3월의 월간 물가 상승폭이 연중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1분기 물가 상승률은 더욱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1분기 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전기비 1.2% 상승했으며 올해는 0.7% 상승에 그쳤다. 2분기 이후 전기비 상승률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1분기의 낮은 물가 수준 때문에 연간으로는 0.4%p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2분기 이후의 물가 상승률을 중전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국내외 수요측 압력이 낮겠지만, 공공 요금, 주거비용 상승 등이 물가 하강 압력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측 압력은 여전히 낮을 것이며 해외 여건도 안정적인 편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반면, 낮은 물가 수준 하에서는 공공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 동안 미뤄왔던 공공 요금이 순차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3] 소비자물가 상승률 컨센서스 비교



자료: 통계청, FnGuide, 한국투자증권

* 상기 보고서는 2013년 4월 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제조업 PMI 예상 하회, 약보합 마감

- ▶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제조업 PMI 50.9, 컨센서스 51.2 (1월 50.1)
- ▶ 중국, 3월 HSBC 제조업 PMI 51.6 (속보치 51.7, 1월 50.4)
- ▶ 중국,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17개 지역 '국5조' 세칙 발표 -중국증권보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약보합 마감.
음식료, 미디어 등 약세

상해종합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거래금액은 669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 733억 위안에 비해 감소했다. 베이징을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국5조 세칙이 발표됐다. 1선 도시에서 규제강화 의지가 확인됐지만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4개 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2~3선 도시에서 20%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판매 증가세, 가격 상승, 하반기 이후 1선 도시 부동산시장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중국 부동산협회 측의 전망 등으로 부동산주가 반등했다. 변종 주류독감에 따른 사망 소식에 헬스케어 관련주도 급등했다. 그러나 3월 관방 제조업PMI가 완만한 경기회복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고 희토류를 비롯한 금속 관련주의 실적 부진, 금융주의 지속적인 약세 등으로 지수가 보합권에 머물렀다. 음식료(-1.4%), 미디어(-0.6%), 비철금속(-0.5%), 은행(-0.4%), 보험(-0.4%), 일반기계(-0.3%) 등이 약세로 마감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2.1%), 부동산(+1.2%), 가전(+1.1%), 시멘트(+1.0%), 증권(+0.9%), 헬스케어(+0.8%), 건설(+0.6%), 통신장비(+0.5%), 화학(+0.4%), 자동차/부품(+0.3%) 등 상당수의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다.

■ 홍콩 시장

Easter Monday로 휴장

Easter Monday로 휴장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4/1 (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34.40	-0.10	-3.97	-0.10	-1.53
홍콩 H	10,896.22	휴장	-0.44	0.00	-4.72
인도 SENSEX	18,862.70	0.14	0.37	0.14	-2.90
러시아 RTS	1,446.35	-0.94	-0.85	-0.94	-5.28
브라질 보베스파	56,352.09	0.57	1.40	0.00	-7.55
베트남 VN	505.81	3.01	2.48	3.01	22.26
MSCI 이머징마켓	1,034.90	0.22	1.24	0.00	-1.92

주: 1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대내외 경제지표 부진 속 외국인의 매도세로 코스피는 2,000P선을 하회하며 마감

- '성금요일'로 미국과 유럽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1분기를 마감. 추가 경정 및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투신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락반전하며 2,000P선을 이탈, 장 막판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섰으나 중국의 3월 제조업PMI가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2,000P선을 회복하지 못한채 마감.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소폭 내림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새정부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따른 수혜 및 해외 진출 기대감에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초강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백신주를 비롯해 방역업체 등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한편, 서울시가 카지노와 스포츠토도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GKL과 파라다이스가 급락했으며, 공개매각에 실패한 STX팬오션도 10%가까이 급락, 이에 따라 STX그룹주도 동반 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12,150(+12.50%)	올해 흑자전환 기대감에 초강세 - 새정부 출범으로 국내 헬스케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에 따른 수혜로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초강세 - 동사는 국내 의료영상 전송저장장치(PACS)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업체임
GKL (114090) ▶30,000(-7.12%)	서울시 레저세 확대 적용 검토 소식에 동반 급락 - 서울시가 채무 감축 및 세입 확대를 위해 기존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에 부과했던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도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동반 급락세
파라다이스(034230) ▶20,200(-7.76%)	- 전문가들은 레저세 부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AI 관련주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소식에 강세 - 중국에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았던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인 H7N9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 - 파루(043200), 이-글 벳(044960, 이상 상한가), 팜스웰바이오(043090, +6.44%), 신라교역(004970, +6.40%), 서울제약(018680 +6.58%), 바이오랜드(052260, +3.64%)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NHN(035420) ▶294,000(+6.14%)	-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으로 신고가 경신
엑토즈소프트(052790) ▶64,200(+10.69%)	- 국내에서 흥행 중인 게임 '밀리언아서'가 대만 출시 3일만에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10위권에 진입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삼천당제약(000250) ▶3,450(+6.15%)	- 의약품제조업체인 디에이치피코리아를 주요 종속회사로 편입. 보유지분 55.6%로 디에이치피코리아의 높은 순이익 및 시너지 효과 기대. 안약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예상
리흠(014470) ▶3,250(상한가)	- 중국 주방가전 전문업체인 로밤전기(ROBAM전기)와 IH압력밥솥 주문자위탁생산 공급계약 체결. 향후 중국 관련 수출 증가에 따른 주가 재평가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세원셀론텍(091090) ▶4,265(+5.57%)	-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한 가운데 정부의 바이오사업 부문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및 성장성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거나 첫신고가를 경신한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SK하이닉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	28,650 (+0.2)	28,600 (3/21)	- 갤럭시S4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모바일 DRAM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스마트폰 및 SSD 보급 확대로 NAND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됨 - 업황 개선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예상되며, 하반기 PC 수요 회복 시에는 PC DRAM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
우주일렉트로 (065680)	27,450 (-0.7)	27,650 (3/05)	- 일본 경쟁업체 대비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여 주요 고객 내에서 점유율 확대 추세 - 금년 1분기에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1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 IMT(In Mold Technology), FFC(Flexible Flat Cable), 자동차용 커넥터 등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부각 가능성 상존
기아차 (000270)	55,100 (+0.2)	55,000 (2/26)	- 1월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1월 세계 시장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인 3.9%(전년동월 3.5%)를 달성. 또한 최저 수준의 재고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3월과 5월에 K3와 K7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신차 모멘텀 기대 - 신모델 출시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감안할 때 환율 안정 시에는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에스엘 (005850)	14,200 (+5.6)	13,450 (2/06)	- A/S부품 비중 상승(에스엘루막스), GM납품 물량 증가(에스엘연대), 제품믹스 개선(에스엘미국) 등으로 지분법 이익 견고.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 현대의 중국 3공장과 브라질공장 가동효과, 미국 테네시공장의 램프 생산능력 확장, 동사 램프를 탑재하는 신모델 출시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엠씨넥스 (097520)	14,600 (+82.3)	8,010 (1/31)	- 작년 하반기부터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삼성으로 공급하기 시작, 향후 물량 확대 가능성 상존. 또한 ZTE, 화웨이 등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ZTE의 신규 최신형 스마트폰 '그랜드S'에 13M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향 매출 신장 기대 -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의 경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중. 향후 미국 내 자동차 후방카메라 의무장착 법안 추진 시 수혜 예상
에스맥 (097780)	16,850 (+2.1)	16,500 (1/21)	- 각종 IT기기에 적용이 되는 입력모듈(Key Module, Touch Screen Module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태블릿 PC 시장 성장과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 터치패널용 핵심부품인 ITO 센서 라인을 증설하여 2013년 상반기 내에는 내재화 비율 100%를 달성할 전망. 여타 터치패널 관련주 대비 저평가 매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하이닉스, 기아차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에스맥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유한양행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유한양행 (000100)	190,000 (+2.2)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5.4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LG전자 (066570)	80,000 (+3.1)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2.9
- 2012년 휴대폰 부분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분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이노베이션 (096770)	161,000 (-5.6)	170,500 (2/06)	67,991	2,326	1,731	18,578	8.7
- 유가 안정과 정제마진 개선, PX/ BTX 등 주요 화학제품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예상 - 정유사업의 실적 변동성 축소로 인한 이익 개선과 석유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이익 규모를 유지할 전망							
대덕GDS (004130)	18,700 (+2.2)	18,300 (1/21)	578	58	49	2,156	8.7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농심 (004370)	306,500 (+12.7)	272,000 (1/3)	2,148	133	128	22,127	13.9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컵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NHN (035420)	294,000 (+29.2)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22.3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HN, SK이노베이션, LG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손해보험: 2월에는 사업비와 손해를 하락 덕에 이익 회복했지만.....

■ 상승 모멘텀 확보를 위한 대외여건 개선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

5개 손해보험사들의 2월 순이익은 1,6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YoY) 증가에 그쳤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20% 이상 늘어났다. 전월 대비 개선의 원인은 보험영업수지 개선이다. 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의 계절적 하락과 장기보장성보험 판매의 둔화에 따른 신계약비부담 감소로 합산비율이 100% 초반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투자이익은 전월에 비해 줄었는데 금기 중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회사와 그렇지 않았던 회사들간의 격차가 더 벌어진 탓이다. 당월 투자이익률이 4.4%를 넘긴 회사는 현대해상(4.6%), 메리츠화재(4.5%), 동부화재(4.5%)의 3개사였다. 삼성화재, LIG손보는 각각 3.7%, 3.4%로 급히 낮아졌다.

5개 원수보험사 합산 기준 당월 투자이익률은 4.02%로써 합산 투자이익은 3,085억원이었다. 투자이익 규모는 전년 동월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비록 운용자산의 외형은 22% 성장했지만, 저금리의 여파로 투자이익률이 10%이상 낮아졌기 때문이다. 2월 중에는 금리가 더 낮아져 채권평가의 증가폭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5개사 합산 자기자본은 16.2조원으로 18%(YoY) 늘었는데, 전월에 비해서도 5,943억원 늘어나 창출된 합산순이익 규모를 크게 초과했다. 2월에 이어 3월 마지막 주에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므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매 분기 보고되는 RBC비율의 산정에는 유리할 것이지만 경제적 의미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여건이다.

비록 2월의 이익은 늘었지만 3월에는 (1)실손의료보험 절판마케팅에 따른 사업비 증가, (2)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기준 동일화의 여파로 당월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가 많을 전망이다. 아울러, 당국의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여파로 시장금리가 급속히 낮아지며 올해 중 기준금리 인하가 2회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비록 수익성에 비해 주가는 낮지만 주가의 상승 모멘텀 확보를 위한 대외여건 개선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 삼성화재, 코리안리, LIG손보 순서의 보수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권함

업종 내 투자를 삼성화재, 코리안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의 순서로 계속 제시한다.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기준이며 자본력에 기초한 배당 여력, 밸류에이션의 순서대로 고려했다. 삼성화재(000810)는 보험업에 대한 규제 환경이 팍팍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동사 주가에는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20% 정도의 상승여력은 타사에 비해서는 크게 높지 않지만 변동성과 하방경직성을 감안해 top-pick으로 유지한다. 코리안리(003690)를 업종 차선호 종목으로 계속 제시한다. 12개월로 환산한 FY13(실제로는 회기 변경 때문에 올해 4~12월 사이 9개월이지만, 내년 3월말까지 전망치를 포함. 이하 동일) 중 착시가 없고, RBC 강화 외에는 규제 리스크의 영향도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원수손보사 중에서는 LIG손해보험(002550)이 차순위 선호 종목이다. FY13 기준 0.8배에 불과한 PBR에 6.9배의 PER로 주가 지표는 업종 내에서 가장 낮다. RBC 비율이 3분기말 현재 183%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매각시 2,000억원 이상의 자본확충 효과가 있는 자사주를 보유 중이고, 최악의 경우 후순위채발행을 병행한다면 주주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건설: 건설업 관점에서 바라본 삼성그룹 EPC

■ 삼성그룹 EPC 3사, convergence로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 시도

지난 10년간 한국 EPC업체의 경쟁력이 가격이었다면 이제 기존과 다른 수주방식과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빠르게 대응하는 업체는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 삼성그룹 EPC 3사로 합산 매출은 글로벌 건설사 순위인 'ENR' 기준 5위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삼성중공업은 FPSO와 캐리어, 삼성엔지니어링은 FSRU와 FPSO의 top-side설계, 삼성물산은 육상 LNG 터미널과 operator로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셰일 가스가 야기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양설비보다 LNG 트레이드 관련 비즈니스의 성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 오프쇼어의 원천설계 역량 내재화는 계열사 공동의 목표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3년간 오프쇼어 진출을 모색해 왔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의 진출 영역은 초기에는 top side 상세설계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동반돼야 하므로 성급한 낙관론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내 Big3 조선사의 최대 목표인 오프쇼어의 FEED(개념설계)역량을 그룹에 내재화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협력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오프쇼어에 진출할 경우 삼성엔지니어링뿐 아니라 삼성물산의 가치 역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발전 등에서 중복 경쟁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그룹 내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역할 중요

건설업 top pick으로 삼성물산을 유지한다. 그룹의 밸류체인 확대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Operator로서 프로젝트 발굴이 가능하며 LNG와 발전, 마인딩 등 주력 비즈니스의 성과가 빠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 track record가 될만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오프쇼어에 진출하고, 2) 저마진 공사의 기성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할 때 투자 의견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쉽지 않은 도전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나 경쟁사 중 가장 먼저 시도하는 혁신의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3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25(월)	03/26(화)	03/27(수)	03/28(목)	03/29(금)	04/01(월)	
유가 증권	종합주가지수	1,977.67	1,983.70	1,993.44	1,993.52	2,004.89	1,995.99	
	등락폭	28.96	6.03	9.74	0.08	11.37	-8.90	
	등락종목							
		상승(상한)	544(7)	384(1)	399(2)	411(5)	528(6)	321(7)
		하락(하한)	266(3)	411(1)	407(1)	387(0)	281(0)	488(2)
	ADR	98.23	99.89	101.54	100.36	99.28	99.34	
	이격도	10 일	100.06	100.41	100.94	100.99	101.47	100.88
		20 일	99.21	99.57	100.08	100.11	100.74	100.33
	투자심리	40	50	50	50	60	60.00	
	거래량	(백만 주)	272	299	347	363	339	264.57
거래대금	(십억 원)	3,408	4,009	3,794	3,394	3,445	2,577.94	
코스 닥	코스닥지수	549.56	549.90	548.72	552.64	555.02	553.97	
	등락폭	-1.69	0.34	-1.18	3.92	2.38	-1.05	
	등락종목							
		상승(상한)	536(8)	436(13)	399(8)	515(11)	522(10)	321(13)
		하락(하한)	377(5)	476(1)	517(2)	390(2)	381(1)	488(0)
	ADR	102.46	102.64	103.19	102.67	102.11	102.76	
	이격도	10 일	100.20	100.15	99.95	100.69	101.11	100.69
		20 일	101.21	101.06	100.65	101.19	101.45	101.11
	투자심리	60	60	50	50	50	60.00	
	거래량	(백만 주)	378	385	435	401	398	397.22
	거래대금	(십억 원)	1,800	1,948	2,030	1,838	2,050	1,867.92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452.3	383.5	726.6	133.4	143.5	204.9	44.1	20.8	150.1	32.4
	매도	1,396.2	440.6	723.4	114.2	132.2	238.1	37.1	19.6	154.4	34.6
	순매수	56.1	-57.1	3.2	19.2	11.3	-33.2	7.0	1.2	-4.3	-2.2
	4 월 누계	56.1	-57.1	3.2	19.2	11.3	-33.2	7.0	1.2	-4.3	-2.2
	13 년 누계	271.7	-2,843.3	2,903.5	1,154.5	486.4	-1,838.5	-32.6	24.8	2,303.4	-331.9
코스닥	매수	1,733.9	55.8	83.2	11.1	8.7	31.2	6.1	1.7	21.0	14.2
	매도	1,700.3	70.0	100.0	20.0	13.9	32.6	9.0	4.7	14.5	16.7
	순매수	33.5	-14.2	-16.8	-8.9	-5.2	-1.4	-2.9	-3.0	6.5	-2.5
	4 월 누계	33.5	-14.2	-16.8	-8.9	-5.2	-1.4	-2.9	-3.0	6.5	-2.5
	13 년 누계	-990.1	643.7	592.7	65.0	26.8	136.5	-31.7	3.0	345.8	-246.3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2,965	운수장비	-14,524
전기가공업	6,092	전기,전자	-11,036
화학	5,476	보험	-10,405
NHN	12,398	POSCO	-10,067
TIGER 200	11,793	LG전자	-7,424
제일모직	6,595	기아차	-4,665
CJ	4,520	동부화재	-4,404
한국전력	4,328	만도	-3,91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919	서비스업	-1,653
운수장비	1,789	전기가공업	-1,112
통신업	996	화학	-492
삼성전자	3,805	NHN	-1,948
TIGER 200	1,607	일진머티리얼즈	-1,328
현대차	1,553	한국전력	-1,114
하나금융지주	603	TIGER 인버스	-981
SK텔레콤	539	한진해운	-705

(체결기준: 백만원)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8,955	전기,전자	-48,017
건설업	8,743	금융업	-19,387
철강및금속	7,738	화학	-13,858
LG디스플레이	6,587	삼성전자	-56,541
LG전자	6,037	하나금융지주	-9,101
KODEX 인버스	5,509	GKL	-8,105
NHN	5,456	SK하이닉스	-7,573
제일모직	5,303	KODEX 레버리지	-7,406
기아차	5,288	LG화학	-6,614
POSCO	5,194	삼성엔지니어링	-4,324
현대건설	5,088	롯데케미칼	-3,850
현대글로벌비스	4,746	신한지주	-3,791
호텔신라	4,406	아모레퍼시픽	-3,697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9,196	운수장비	-13,869
금융업	26,376	보험	-13,705
전기가공업	9,311	운수창고	-10,058
삼성전자	53,238	KODEX 레버리지	-17,434
제일모직	13,003	LG전자	-13,736
하나금융지주	8,570	GKL	-13,031
한국전력	8,552	현대해상	-9,607
우리금융	8,401	POSCO	-8,281
신한지주	8,222	기아차	-6,900
NHN	7,622	LG디스플레이	-6,649
SK하이닉스	7,122	한진해운	-6,132
엔씨소프트	5,813	현대건설	-5,290
고려아연	5,782	호텔신라	-4,669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9,196	운수장비	-13,869
금융업	26,376	보험	-13,705
전기가공업	9,311	운수창고	-10,058
삼성전자	53,238	KODEX 레버리지	-17,434
제일모직	13,003	LG전자	-13,736
하나금융지주	8,570	GKL	-13,031
한국전력	8,552	현대해상	-9,607
우리금융	8,401	POSCO	-8,281
신한지주	8,222	기아차	-6,900
NHN	7,622	LG디스플레이	-6,649
SK하이닉스	7,122	한진해운	-6,132
엔씨소프트	5,813	현대건설	-5,290
고려아연	5,782	호텔신라	-4,66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4,578	오락,문화	-4,686
기계,장비	2,158	IT부품	-2,480
소프트웨어	1,084	사업지원	-2,017
씨젠	3,932	파라다이스	-4,295
코오롱생명과학	1,738	하나투어	-1,919
서울반도체	1,462	에이블씨앤씨	-1,272
에스에프에이	1,422	메디톡스	-1,017
유비벨룩스	861	아모텍	-971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기기	1,777	오락,문화	-2,742
디지털컨텐츠	1,367	화학	-838
통신서비스	1,210	출판,매체복제	-239
게임빌	1,398	파라다이스	-2,751
SK브로드밴드	1,210	에이블씨앤씨	-1,002
CJ오쇼핑	994	위메이드	-607
오스템임플란트	853	실리콘웍스	-535
다음	725	GS홈쇼핑	-45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사업지원	227	반도체	-569
소프트웨어	94	디지털컨텐츠	-436
제약	91	IT부품	-230
캠트로닉스	500	실리콘웍스	-748
하나투어	228	모베이스	-637
이라이콤	142	네오위즈게임즈	-404
KG이니시스	140	하이비전시스템	-252
게임빌	113	에이블씨앤씨	-20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994	IT부품	-2,594
디지털컨텐츠	955	오락,문화	-2,095
통신장비	847	반도체	-1,364
게임빌	790	파라다이스	-2,095
코오롱생명과학	707	파트론	-1,272
알에프텍	629	이엘케이	-1,027
에이블씨앤씨	615	GS홈쇼핑	-764
이엠텍	532	하나투어	-717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5,557	오락,문화	-14,418
디지털컨텐츠	3,219	전문기술	-5,054
의료,정밀기기	2,996	반도체	-4,172
코오롱생명과학	3,453	파라다이스	-13,994
씨젠	3,001	CJ E&M	-4,662
게임빌	1,917	하나투어	-2,262
세코닉스	1,220	이엘케이	-2,211
에스에프에이	1,175	에이블씨앤씨	-2,168
서울반도체	1,096	실리콘웍스	-2,109
엑토즈소프트	1,049	아모텍	-1,549
로만손	988	태광	-1,285
SK브로드밴드	946	루멘스	-1,134
케이엠더블유	940	모두투어	-1,08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115	오락,문화	-7,899
사업지원	924	IT부품	-4,025
의료,정밀기기	800	제약	-2,564
루멘스	1,437	파라다이스	-8,035
씨티씨바이오	1,035	차바이오앤	-2,756
서울반도체	865	씨젠	-1,914
세중	813	컴투스	-1,574
CJ E&M	761	파트론	-1,169
KG이니시스	761	실리콘웍스	-981
안랩	615	이지바이오	-820
GS홈쇼핑	571	다음	-641
성우하이텍	531	메디포스트	-590
게임빌	483	CJ오쇼핑	-55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엔씨소프트	14 일	일성신약	30 일
현대차	13 일	아세아시멘트	17 일
SK	12 일	삼영전자	10 일
삼성전자	12 일	후성	8 일
코오롱	10 일	한국셀석유	7 일
한솔제지	8 일	SK케미칼	7 일
우리금융	8 일	한진해운홀딩스	6 일
하나금융지주	8 일	한일시멘트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71 일	GS홈쇼핑	12 일
포스코 ICT	9 일	포스코캡텍	8 일
유진기업	7 일	루멘스	6 일
서부T&D	4 일	평화정공	5 일
동서	4 일	셀트리온	5 일
인터파크	4 일	포스코엠텍	4 일
웹젠	4 일	에스에프에이	4 일
에이테크솔루션	4 일	동국산업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435,432	SK하이닉스	81,654
KODEX 레버리지	177,310	LG디스플레이	42,866
기아차	89,906	현대차	36,864
현대차	76,132	호텔신라	23,941
현대모비스	58,224	삼성생명	16,260
하나금융지주	43,970	현대글로벌비스	15,217
제일모직	38,589	LG전자	15,184
우리금융	35,688	현대백화점	15,03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씨젠	38,451	셀트리온	12,355
에스엠	5,857	GS홈쇼핑	10,705
모베이스	5,823	CJ E&M	6,616
모베이스	5,823	씨젠	6,488
코오롱생명과학	5,783	성우하이텍	6,101
코오롱생명과학	5,783	루멘스	6,021
조이맥스	4,370	서울반도체	3,948
조이맥스	4,370	안랩	3,33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	가	9,311	2,119
유	통	511	8,955
기	계	1,615	1,226
제일	모	13,003	5,303
NHN		7,622	5,456
한국	전	8,552	2,259
KODEX	인	2,633	5,509
대우	인	5,168	1,892
고려	아	5,782	776
LG	하	3,469	151
롯데	쇼	1,707	1,223
현대	미	1,426	1,080
미래	에	2,121	302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의	료	2,996	800
소	프	1,796	484
도	매	1,376	640
게	임	1,917	483
서	울	1,096	865
씨	티	921	1,035
KG	이	792	761
젬	백	937	387
에	스	1,175	107
엑	토	1,049	179
로	만	988	7
이	라	700	270
유	비	883	7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S&P500선물(H)	44 일	GS건설	21 일
제일기획	23 일	현대증권	16 일
KStar 우량회사채	13 일	KODEX 철강	13 일
KODEX 구리선물(H)	13 일	대한유화	12 일
KStar 코스닥엘리트30	9 일	빙그레	10 일
남해화학	8 일	신한지주	10 일
TIGER 코스닥프리미어	8 일	대교	9 일
KODEX 은선물(H)	8 일	GS건설	2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포스코켐텍	12 일	SBS콘텐츠허브	13 일
심텍	11 일	이트레이드증권	10 일
모두투어	11 일	아미노로직스	4 일
성우하이텍	8 일	에스엔유	4 일
KCC건설	7 일	태광	3 일
루멘스	7 일	하나투어	3 일
이오테크닉스	6 일	인터플렉스	3 일
디지텍시스템	6 일	KH바텍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롯데케미칼	-32,174	삼성전자	-217,548
삼성중공업	-28,761	LG화학	-99,264
현대하이스코	-26,172	삼성엔지니어링	-43,645
LG디스플레이	-25,486	기아차	-37,305
KODEX 인버스	-20,367	하나금융지주	-34,949
SK하이닉스	-19,921	우리금융	-29,510
현대위아	-18,855	OCI	-27,279
LG화학	-17,932	신한지주	-26,794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23,119	파라다이스	-9,993
CJ E&M	-23,119	메가스터디	-6,197
CJ E&M	-23,119	이니텍	-4,614
파라다이스	-10,787	비에이치	-3,177
루멘스	-10,468	게임빌	-3,151
성우하이텍	-10,144	차바이오앤	-3,066
SK브로드밴드	-9,169	SBS콘텐츠허브	-2,679
모두투어	-5,553	컴투스	-2,648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종	목	외	국 인
합	계		
서비스업	-5,922	-13,697	-19,619
음식료품	-7,907	-8,338	-16,245
의약품	-391	-2,178	-2,569
KODEX 레버리지	-17,434	-7,406	-24,841
GKL	-13,031	-8,105	-21,136
LG화학	-3,266	-6,614	-9,880
롯데케미칼	-3,626	-3,850	-7,476
삼성엔지니어링	-2,164	-4,324	-6,488
만도	-4,043	-1,327	-5,371
LS산전	-4,516	-149	-4,665
아모레퍼시픽	-170	-3,697	-3,866
S-Oil	-2,378	-865	-3,243
LG	-2,057	-1,162	-3,219

KOSDAQ			
종	목	기	관
종	목	외	국 인
합	계		
오락,문화	-14,418	-7,899	-22,317
IT부품	-2,435	-4,025	-6,460
음식료,담배	-1,968	-1,389	-3,357
파라다이스	-13,994	-8,035	-22,028
실리콘웍스	-2,109	-981	-3,091
차바이오앤	-170	-2,756	-2,926
하나투어	-2,262	-315	-2,578
에이블씨엔씨	-2,168	-405	-2,573
파트론	-623	-1,169	-1,792
태광	-1,285	-221	-1,505
이지바이오	-447	-820	-1,267
국순당	-940	-133	-1,074
에스24	-475	-435	-91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5	22,007
롯데케미칼	47	9,243
KODEX 200	342	9,032
SK하이닉스	173	5,054
아모레퍼시픽	5	4,784
삼성엔지니어링	35	4,517
대우조선해양	165	4,480
현대산업	174	4,32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CJ E&M	30	1,041
에이블씨엔씨	8	718
안랩	9	619
씨티씨바이오	18	602
삼천당제약	174	550
씨젠	7	464
바텍	28	438
EMLSI	94	401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209	6,356,327
POSCO	9,618	3,144,990
LG전자	23,930	1,947,883
OCI	7,942	1,266,754
현대차	5,414	1,210,078
SK하이닉스	32,187	941,482
NHN	3,365	901,888
현대모비스	2,711	843,24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9,519	506,430
서울반도체	4,388	127,481
파라다이스	4,036	85,554
에스엠	1,811	85,045
파트론	3,306	84,788
씨젠	1,142	78,586
차바이오앤	5,639	69,638
덕산하이메탈	2,446	66,282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은행	3,858	증권	-3,627
금융업	1,725	전기,전자	-2,687
운수장비	1,634	통신업	-2,612
외환은행	2,882	LG전자	-3,216
한진해운	2,402	KT	-2,575
중국원양자원	1,716	넥센타이어	-2,149
기아차	1,705	KODEX 200	-1,995
하나금융지주	1,668	삼성증권	-1,956
현대산업	1,080	두산인프라코어	-1,755
삼성물산	1,048	STX조선해양	-1,358
기업은행	977	한진중공업	-1,184
대한전선	914	현대상선	-1,013
삼성중공업	874	코웨이	-99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1,005	제약	-7,210
소프트웨어	804	전문기술	-687
종합건설	654	정보기기	-326
서희건설	674	셀트리온	-7,347
루멘스	607	인터파크	-1,117
파트론	583	시그네틱스	-271
유원컴텍	493	에스비엠	-245
CJ E&M	406	오스템임플란트	-188
대아티아이	385	캠트로닉스	-166
인프라웨어	305	이엘케이	-137
플렉스컴	217	SK컴즈	-123
유비케어	210	KH바텍	-122
성우하이텍	186	오성엘에스티	-117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26(화)	03/27(수)	03/28(목)	03/29(금)	04/01(월)
외국인	-2,843.3	-57.1	676.0	-34.7	-214.3	-150.8	132.7	-57.1
기관계	2,903.5	3.2	-244.3	103.7	366.2	193.3	159.5	3.2
(투신)	-1,838.5	-33.2	-442.3	-51.2	81.8	-29.2	60.7	-33.2
(연기금)	2,332.4	-0.5	-43.5	166.6	106.0	14.1	74.7	-0.5
(은행)	24.8	1.2	-1.4	3.8	6.2	3.6	-5.0	1.2
(보험)	486.4	11.3	28.0	-20.0	28.0	17.1	-11.5	11.3
개인	271.7	56.1	-377.4	-85.8	-153.3	-35.3	-281.1	56.1
기타	-331.9	-2.2	-54.3	16.8	1.4	-7.2	-11.2	-2.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3/25(월)	03/26(화)	03/27(수)	03/28(목)	03/29(금)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77.67	1,983.70	1,993.44	1,993.52	2,004.9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413.4	18047.9	17533.3	18286.1	17,247.5
(증감액)	2735.7	1996.5	3611.7	252.5	634.5	-514.6	752.8	-1,038.6
(회전율)	52.6	51.5	34.2	30.5	33.0	34.1	29.3	32.3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475.7	694.4	-536.3	636.0	-1,168.2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404.7	4418.1	4446.1	4459.1	4,462.0
미수금	240.2	192.3	187.7	143.9	133.5	129.9	124.0	116.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3/25(월)	03/26(화)	03/27(수)	03/28(목)	03/29(금)
전체 주식형	91,915	-2,271	0	137	-153	-120	36	353
(ex. ETF)		-2,861	0	110	-135	-149	58	-29
국내 주식형	66,887	-1,366	0	128	-188	-146	46	363
(ex. ETF)		-1,966	0	101	-171	-175	67	-19
해외 주식형	25,029	-905	0	9	36	26	-9	-10
(ex. ETF)		-895	0	9	36	26	-9	-10
주식 혼합형	9,624	-377	0	-1	65	-26	-12	25
채권 혼합형	20,818	1,753	0	56	155	131	74	94
채권형	49,930	2,205	0	18	-106	301	134	119
MMF	75,329	11,761	0	-1,316	-1,409	322	-1,311	-2,52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26(화)	03/27(수)	03/28(목)	03/29(금)	04/01(월)
한 국	-2,569	-51	161	-31	-192	-135	122	-51
대 만	500	0	449	-27	49	-22	117	-
인 도	10,151	0	332	104	-	-	-	-
인도네시아	1,936	0	227	49	64	53	-	-
태국	124	0	61	23	42	23	-25	-
남아공	462	0	-2	-42	-	-	-	-
필리핀	1,005	0	40	7	33	-	-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3/25(월)	03/26(화)	03/27(수)	03/28(목)	03/29(금)	04/01(월)
회사채 (AA-)	3.29	2.92	2.92	2.92	2.80	2.88	2.85
회사채 (BBB-)	8.80	8.54	8.54	8.54	8.41	8.49	8.47
국고채 (3년)	2.82	2.58	2.58	2.58	2.45	2.52	2.49
국고채 (5년)	2.97	2.66	2.66	2.65	2.51	2.58	2.57
국고채 (10년)	3.16	2.88	2.88	2.86	2.73	2.80	2.81
미 국채 (10년)	1.76	1.92	1.90	1.84	1.84	1.84	-
일 국채 (10년)	0.80	0.56	0.54	0.52	0.51	0.51	-
원/달러	1,070.60	1,110.80	1,105.70	1,111.60	1,111.15	1,111.10	1,114.80
원/엔	1,243.73	1,174.57	1,174.02	1,173.31	1,180.06	1,181.76	1,191.41
엔/달러	86.08	94.57	94.18	94.74	94.16	94.02	93.57
달러/유로	1.32	1.29	1.29	1.28	1.27	1.28	1.28
DDR3 1Gb (1333MHz)	0.67	1.04	1.04	1.04	1.04	1.04	-
DDR3 2Gb (1333MHz)	1.07	1.75	1.72	1.72	1.71	1.74	-
NAND Flash 16Gb (MLC)	1.89	2.98	2.95	2.95	2.96	2.96	-
CRB 지수	295.01	294.70	296.72	298.17	296.39	296.39	-
LME 지수	3,454.5	3,295.8	3,284.0	3,284.3	3,261.1	3,262.1	-
BDI	699	935	931	922	910	910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3.71	95.92	96.73	97.23	97.28	-
금 (달러/온스)	1,663.40	1,604.50	1,595.70	1,606.20	1,595.70	1,595.7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306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3월 26일	260.54	261.80	1.37	1.26	1.29	143,074	107,945	245
3월 27일	261.86	263.90	1.36	2.04	1.06	180,947	105,965	-1,980
3월 28일	261.86	263.90	1.35	2.04	1.61	125,046	106,576	611
3월 29일	263.39	264.90	1.55	1.51	1.80	139,328	107,718	1,142
4월 1일	262.27	264.65	1.56	2.38	1.99	112,350	108,937	1,219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3월 26일	-599	-12	613	92	-93	0	654	-34
3월 27일	4,809	-945	-3,794	-2,325	-1,190	142	-74	-351
3월 28일	1,358	-1,443	20	-180	-144	27	131	186
3월 29일	1,204	1,524	-2,965	-2,128	-1,025	-141	568	-242
4월 1일	-440	155	579	1,133	-657	-74	195	-18
누적포지션	-2,799	-2,154	4,732	-2,665	6,493	-116	216	792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3월 26일	645	644	-1	608	638	30	36	6	-30	4,929	9,046
3월 27일	777	989	212	745	829	85	33	160	127	4,878	9,112
3월 28일	652	820	169	644	751	107	8	70	62	4,874	9,169
3월 29일	451	732	282	447	709	262	4	24	20	4,844	9,161
4월 1일	368	368	0	363	353	-10	5	15	10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5.67	1,233	100,943	0.10	275.00	12.15	20	-12	0.00
15.51	1,336	132,834	0.22	272.50	9.30	97	-12	0.00
15.64	5,886	136,593	0.48	270.00	7.05	535	-37	0.00
16.19	2,289	130,794	1.00	267.50	5.05	4,370	-86	5.80
17.15	1,501	108,844	1.89	265.00	3.35	13,023	-370	10.41
18.27	402	27,746	3.15	262.50	2.19	103,956	-246	12.55
20.17	-28	7,225	4.85	260.00	1.36	123,851	149	13.88
22.23	-75	952	6.80	257.50	0.83	115,394	1,649	15.09
23.49	9	249	8.80	255.00	0.48	94,779	1,577	16.01
23.95	-13	50	10.85	252.50	0.31	72,139	5,983	17.44
29.91	-19	55	13.55	250.00	0.21	73,826	3,535	1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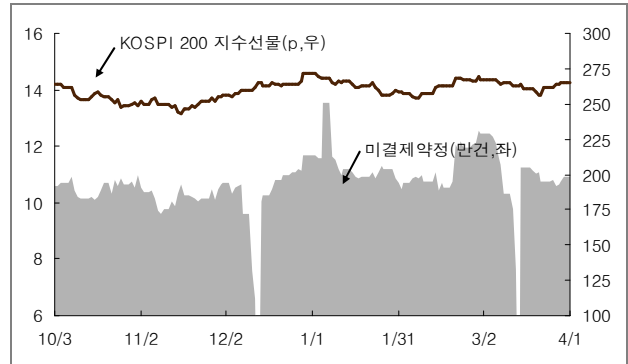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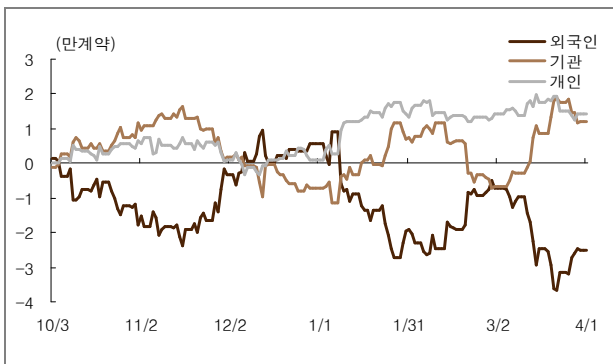
- 평균 Basis: 1.80 (전 거래일 대비 0.19 하락)
- 이론 Basis: 1.49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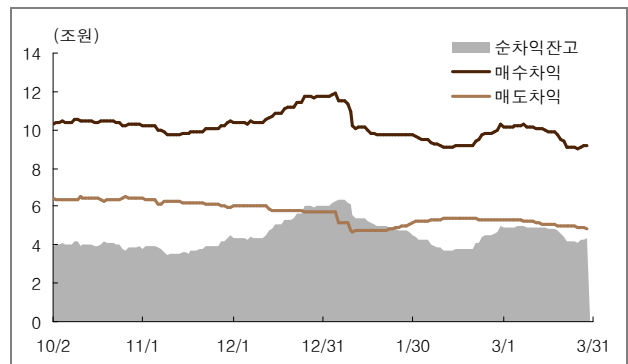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219 계약 증가한 108,937 계약
- 선물가격(264.65): 전 거래일 대비 0.2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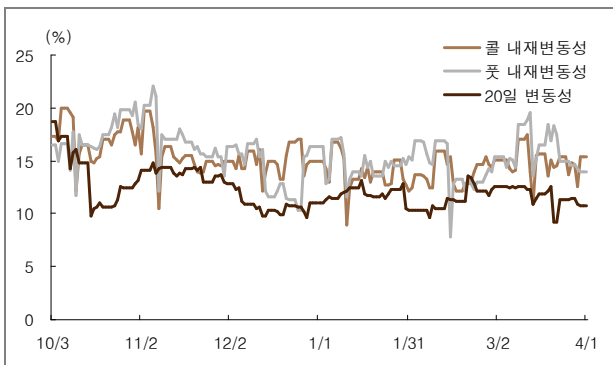
- 외국인: 440 계약 순매도
- 기관: 579 계약 순매수 / 개인: 155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98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98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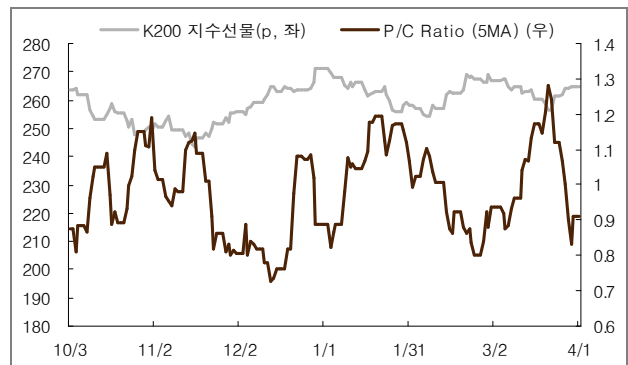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5.4% / 풋 13.9%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0.69%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3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1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5	26	27	28	29
	韓> 4분기 GDP YoY (1.5%, n/a, 1.5%) 4분기 GDP QoQ (0.3%, n/a, 0.4%) 美> 2월 내구재 주문 MoM (5.7%, 3.9%, 3.8%) 1월 S&P/CS 주택가격지수 (146.14, 146.17, 145.95) 3월 소비자대지수 (59.7, 67.5, 68.0) 2월 신규주택매매 MoM (-4.6%, -3.9%, 15.6%)	韓> 3월 소비자대지수 (104, n/a, 102) 美> 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7.7%, n/a, -7.1%) 2월 미결제주택매매 MoM (-0.4%, 0.7%, 3.8%)	韓> 2월 경상수지 (\$271.3억, n/a, \$233.2억)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4.0만, 33.6만) 中> 2월 선행지수 (미확정) (n/a, n/a, 100.50)	韓> 4월 BSI 제조업 (80, n/a, 76) 4월 BSI 비제조업 (71, n/a, 69) 2월 산업생산 MoM (0.8%, 0.3%, -1.5%) 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0.1, n/a, -0.2) 美> 2월 개인소득 MoM (1.1%, 0.8%, -3.6%) 2월 개인소비지수 MoM (0.7%, 0.6%, 0.4%) 日> 2월 실업률 (4.3%, 4.2%, 4.2%)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0.7%, -0.7%, -0.3%) 2월 산업생산 MoM (잠정치) (-0.1%, 2.5%, 0.3%) 2월 자동차 생산 YoY (-15.1%, n/a, -9.9%)
4/1	2	3	4	5
韓>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2%, 1.8%, 1.4%) 3월 무역수지 (\$33.6억, \$30.5억, \$20.2억) 3월 HSBC 제조업 PMI (52.0, n/a, 50.9) 美> 2월 건설지출 MoM (n/a, 1.0%, -2.1%) 中> 3월 HSBC PMI 제조업 (51.6, 51.6, 50.4) 日> 1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8, -7, -12)	韓> 3월 외환보유액(잠정치) (n/a, n/a, \$3,274억) 美> 3월 ISM 뉴욕 (n/a, n/a, 58.8) 3월 제조업수주 (n/a, 2.9%, -2.0%) 4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n/a, 45.5, 42.2) 유럽> 2월 유로권 실업률 (n/a, 12.0%, 11.9%) 日> 3월 자동차판매 YoY (n/a, 12.0, 11.9)	美> 3월 국내 자동차판매 (n/a, 1,210만대, 1,199만대)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7.7%) ADB 취업자변동 (n/a, 20.0만, 19.8만) 3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55.8, 56.0) 中> 3월 HSBC PMI 비제조업 (n/a, n/a, 52.1) 실적발표> 美 몬산토	美> 4월 RBC 소비자전망지수 (n/a, n/a, 47.1)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35.7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n/a, n/a, 305만) 유럽> 2월 유로권 PPI YoY (n/a, 1.4%, 1.9%) ECB 금리 공시 (n/a, 0.75%, 0.75%) 日> 일본은행 정책금리 (n/a, 0.10%, 0.10%)	美> 3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n/a, 19.5만, 23.6만) 3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 (n/a, 20.5만, 24.6만) 3월 실업률 (n/a, 7.7%, 7.7%) 2월 소비자신용지수 (n/a, \$155억, \$161억) 유럽> 2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n/a, -1.3%, -1.3%) 日> 2월 동행지수 CI (n/a, 91.9, 91.6) 2월 선행지수 CI (n/a, 97.2, 95.0)
8	9	10	11	12
유럽> 4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 日> 2월 경상수지 YoY%	美> 3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中>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3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대비)	韓> 3월 실업률 SA 3월 M2 통화공급 SA 3월 은행가계대출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中> 3월 무역수지 (미달러)	韓> 대한민국 7일물 REPO 금리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FOMC 회의록 공개 中> 3월 통화공급 - M2 YoY 日> 3월 일본 통화량 M2 YoY	美> 3월 소매판매액지수 3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월 기업재고 유럽> 2월 유로권 산업생산 YoY EU 재무장관회의 中> 3월 통화공급 - M2 YoY 실적발표> 美 JP모건&체이스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